

목포시, 공영버스 집중배차·증회 ‘공공성 강화’

3월1일부터 통학 수요 증가 대비 200번 10회·108번7회·800번 4회 항구포차 추가 운행 상권 활성화 노선 일부 조정 이용자 중심 운행

목포시가 봄철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는 3월1일부터 공영버스 운행 증회와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항구포차 등 경유지를 추가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새학기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노선을 증회 운행하고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통학·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이 시행된다.

주요 변화 사항으로는 3사업권 위탁사업자인 목포비티에스의 운수종사자 총원 안정화와 목포대 개학 등에 맞춰 200번 10회, 108번 7회, 800번 4회씩 추가 운행된다.

300(300A)번은 운수종사자의 최소 휴식 시간 보장과 안전 운행을 위해 기존 5.5회에서 4.5회로 조정된다.

이용자가 많은 1번, 2(2-1)번, 66

(66-1)번은 평균 13~16분 간격에서 통학 및 출퇴근 시간에는 10~13분 간격으로 좁혀, 이용자 중심으로 운행이 조정된다.

직영 공영버스는 운전원 지원자 부족으로 충원이 지연됨에 따라 3번 노선을 우선 5회 증회하고 지속적인 채용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목포시는 낭만버스 관련 민원을 반영해 개선 운행할 계획이다.

낭만버스 33-2번을 항구포차까지 운행해 상권 활성화를 돕고 고하도 입구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사이에 정류장 2개를 신설해 22-1(22-2)번을 이용하는 고하도 주민 편의를 높인다.

변경된 운행 시간 및 세부 노선 정보는 목포시청 누리집 방문 및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는 3월 봄철 교통 수요 증가에 맞춰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더 나은 공영버스를 위해 노선 일부 조정, 친절 강화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곡성군, 토양개량제 2268톤 공급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대상

곡성군은 올해 토양개량제를 농번기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 25일 공급 대상 읍면 관계자(행정, 농업, 이장 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 토양개량 및 지역 유지 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3년에 1주기로 공급해 오고 있다.

올해 공급 대상 지역은 임면, 겸면, 오산면 3개 면으로 총 7387필지, 1210ha에 규산 8만4849포, 석회 2만5737포, 패화석 2818포 등 총 11만3404포의 공급이 확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동살포 지역 구획 및 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 등을 결정했으며 향후 공동살포 대행단 구성 및 살포 일정 계획을 수립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급될 토양개량제는 지난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마감했으며 내년에는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영농철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가축 질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 진도군, 방역 취약지 집중 소독

진도군은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방제단을 동원, 방역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오는 12월 말까지 총 50 농가를 대상으로 24회의 일제 소독을 지원한다.

소독 차량과 방역 요원을 상시 배치해 농장 입구와 축사 주변, 축산차량 바퀴 등을 소독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소독 대상 농가는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3000수 미만, 오리 2000수 미만의 농가이며 이외에도 밀집 사육 지역,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독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방역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진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도=백재현 기자

농업용 드론 자격증 교육생 모집 담양군, 전문 인력 육성

담양군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남도립대와 협력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드론 3종 및 1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비가 사후 지원된다.

전남도립대는 드론 3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교육을 추진하고 30만원의 교육비를 받은 후 수료를 완료하면 교육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1종 자격증 희망자는 별도의 전문 기관에서 교육을 자부담으로 받고 자격증 취득 시 70만원의 지원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교육신청서와 담양군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월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용 드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전국 74개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2회 강진군과 함께하는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에 참여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진행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이용대배 배드민턴 꿈나무 최강전' 개최

강진군이 28일까지 '강진군과 함께하는 제2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배드민턴 대회)'을 개최한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관계자, 가족 등 1000여명이 강진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 각 학교 자체평가전 선수 선발 순위를 바탕으로 선발됐으며 전국 74개의 초등학교 344명(3·4·5학년)의 선수들이 남·여,

단식·복식으로 경쟁을 펼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훗날 대한민국 배드민턴계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간 경쟁의 장으로, 차기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릴 적 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배드민턴 저변이 확대되고 어린 선수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대회 기간 중 강진에 방문한 선수

와 관계자에게 강진 반값여행을 적극 홍보하고 강진청차축제장 방문 및 관내 소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다”며 “이번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 대회와 같은 전국 단위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군의 다양한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나주시보건소, '1305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

참여자 추천 지역상품권 지급

나주시보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1305 건강걷기 챌린지(1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1305'는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걷기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305 건강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 걸음 수 측정 애플리케이션 '워크온'을 활용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워크온 앱에서 '나주시보건소 1305 건강걷기 챌린지'에 가입하고 '예약' 또는 '참여하기'를 누르

면 된다.

3월1일부터 28일까지 20만보를 달성해 리워드 응모를 완료한 참여자 중 425명을 추천,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1만 원을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챌린지는 지난해에도 시민 4000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사후 걷기 실천율 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걷기 실천율이 52%에서 62%로 10%p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용근 보건소장은 “올해 총 4회의 챌린지를 운영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며 “건강한 생활 습관 정착을 통해

3/4 비만예방의 날 기념 1기 1305 건강걷기 챌린지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실천해 주세요!

참여기간 2025. 3. 1(화) - 3. 28(금) 19시부터 15,000보 인정 (2.24일부터 1305년 1305보 인정으로 변경된 것임)

참여대상 나주시민

참여방법

-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W 워크온 앱 설치 및 가입
- 2 워크온(키워치) 나주시 걷기 1305 건강걷기 챌린지 가입
- 3 워크온(챌린지) 나주시 걷기 3월 건강걷기 챌린지(1기) 참여 또는 참여하기 3월 1일부터 걸음 수 누적 시작
- 4 운영기간 내 보 20만 보 달성 후 챌린지 리워드 응모하기 완료

응모조건 '워크온'이 완료 / '나주시' 설정으로 설정 / 425명 추천 (추천은 1305보 이상 걷기 실천을 완료한 시민 1명 추천 가능 / 추천은 1305보 이상 걷기 실천을 완료한 시민 1명 추천 가능)

응모기간 2025. 4. 4(금)까지

상 품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1만원 (지역상품권 100% 적립 및 기금 10% 후원)

신청자 안내 및 상품지급 2025. 4월 중

문의 061-339-4804

나주시보건소

삶의 질을 높이고 비만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영암군, 조기 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3월 7일까지 신청

영암군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예산 11억9000만원을 확보해 411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등급 자동차 중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하고 총 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경우에는 폐차만 해도 차량가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 관공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지자체 지원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없는 차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3월7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나 영암군 환경기후과와 각 읍면에 등기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다.

양동태 영암군 환경기후과장은 “주민 건강과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조기 폐차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